강진군, 청년농업인 자립 꿈 키울 스마트팜 지원 박차

최근 3년간 6개소 조성…스마트 농업 1번지 도약 발판 마련
맞춤형 컨설팅·교육, 실증 재배단지 연계 정착 지원도 속도

강진군이 스마트팜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꿈에 기술을 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농업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6개소의 스마트팜 조성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지역 농업의 미래 스마트 농업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안정 정착을 위해 정착 지원금, 창업농장 조성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통해 단순 지원을 넘어 청년농의 실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원사업으로 구축된 스마트팜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기준'에 따른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 1500㎡이상의 규모로 작물 생육 환경 유지관리에 필요한 양액재배 시설, 냉·난방 조절 장치 등 복합 환경제어 시설과 함께 자동 원격 환경관리가 가능한 ICT 기술이 도입돼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작물 생육 안정화를 도와준다.

6개소 사업에 25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지원금은 60%, 자부담은 40%로 구성돼 청년농의 초기 영농 기반 마련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수혜 농가는 사업을 통해 초기정착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해 영농정착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스마트팜 구축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환경제어기를 통한 자동 냉난방·관수 시스템은 점점 가속되고 있는 이상기후와 돌발 악천후에 대비해 온실 내 환경을 작물재배의 최적 상태로 맞추어 주어 장미 연중생산 및 우량 묘목생산 등을 실현할 수 있게 했다.

강진군의 지원을 받은 손지은 농가 스마트팜.

이번 사업에 지원된 스마트팜 기술은 기존 세대와 차별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환경제어 시스템은 매시간 기상과 스마트팜 내·외부 환경을 감지함과 동시에 데이터로 저장한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을 시각화하고 최적의 작물재배 환경을 조성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청년농업인은 "환경제어 시스템에 적립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기 적절한 환경조성 대응과 그에 따른 경험이 축적된다면 연속 출래의 실현은 더 이상 운에 맡긴 확률이 아닌 확정된 재배방식이 될 것이다"라며 "경험과 노하우로 작물 재배의 달인이 되어 있는 아버지 세대의 실력을 최신 스마트팜 기술과 열정으로 뛰어 넘어보겠다"라고 말했다.

강진군은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의 창업 안정화와 정착 지원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스마트팜 시설 확대는 물론 맞춤형 컨설팅, 스마트농업 교육, 실증 재배단지 연계 등을 추진해 지역 내 청년 친화형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본격 조성할 방침이다.

최영아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이 기후 변화,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청년농과 스마트팜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해답"이라며 "강진을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함평 월야초~빛그린산단 도로 확장…"지역발전 마중물"

2028년까지 500m 구간 4차선으로
산단 접근성 개선·물류 효율성 기대

함평군이 월야초등학교와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한다.

함평군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월야초~빛그린산단 연결 도로가 최종 선정돼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이를 포함해 총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한다.

해당 도로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월야면 구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다. 도로 확장시 산단 접근성 개선과 물류 효율성 향상은 물론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 유입 촉진, 지역 상권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는 함평군 월야면과 광주 광산구 일원에 걸쳐 약 123만평 규모로 조성 중이며, 1단계 광주 구간은 준공을 완료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

2단계 함평 구역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금호타이어 등 대형 기업 입주가 예정돼 있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도로 확장 사업은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월야면 도시재생 활성화 등 군이 추진 중인 핵심 전략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 농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점검

근로현장·숙소 방문 대면조사

나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 농가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나섰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E-8)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인권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외국인 이주노동자(E-9)를 중심으로 폭언,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예방과 보호 강화 그리고 제도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한다.

현장 점검은 근로 현장과 숙소를 직접 방문해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거시설 적정성, 임금 지급 실태, 최저임금 준수 여부, 폭언 및 폭행 발생 여부 등 인권침해 중심 항목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계절근로자 제도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및 차년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고용 농가와 근로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정 간담회 개최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라며 "고용 농가에서도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일본뇌염 집중방역

취약지역 주 2회 방역소독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장성군이 일본뇌염 감염 방지를 위해 집중 방역과 유충 구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뇌염은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고열, 경련, 혼수 등 중증 뇌염을 일으킬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이달 1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장성군은 감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하수구, 정화조 등 유충 서식지도 빈틈없이 방역하고 있다.

장성군 방역차량이 여름철 모기 방제를 위해 도로변에 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예방백신 접종도 병행된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일본뇌염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이며, 해외 풍토병 지역 방문 예정자 등 고위험군 성인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유료 예방접종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접종 일정과 의료기관 안내는 장성군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비 온 후 기온 상승으로 모기 개체 수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현장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해외여행 시 모기 물림에 주의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감성과 개성이 한 가득…담양으로 카페여행 오세요

282곳 한눈에 '카페지도' 제작
QR 코드 위치·리뷰 확인 가능

담양군이 지역 카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카페지도를 제작해 눈길을 끈다.

담양군은 최근 감성적이고 개성 있는 카페들이 늘어남에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282곳 카페 정보를 담은 '담양 카페지도'를 새롭게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담양 카페지도는 읍·면별로 카페를 구분하고 상호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카페지도에 표기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네이버지도에서 위치, 리뷰, 영업시간 등 상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관광객 편의를 높였다.

관광객들은 카페지도를 통해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등 주요 관광지 인근은 물론, 평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읍면 지역의 숨은 카페까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어, 담양 곳곳을 여행하며 나만의 '카페 투어'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군은 제작한 카페지도를 관광 안내소, 읍·면사무소, 주요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하고, 담양군 누리집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카페지도가 관광객에게 다양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감성 여행지로서의 담양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군, 어린이·다문화 가족 작은도서관 개관

어울림센터 내 126㎡ 규모

〈사진〉

화순어울림센터 내에 어린이와 다문화 가족에 특화된 작은도서관 '책이랑 어울림'이 문을 열었다.

이 도서관은 2021년 문화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총 3억 3000만원(국비 1억 1200만원, 군비 2억 1800만원)을 들여 조성됐다. 126㎡ 규모의 공간에는 푹신한 매트와 가족 단위 이용 구역이 마련돼,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책을 읽으며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약 1300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으며, 이 중 600권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담은 다문화 도서로 구성돼 다양한 문화 이해에 도움을 준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강삼영 화순군 문화예술과장은 "책이랑 어울림은 책을 매개로 다양한 가족이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라며 "지역 주민의 독서 접근성과 문화 다양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군, 수해 군민 지방세·농기계 임대료 감면

재산세 유예·판손 자동차세 면세

함평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함평군은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군민,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군민이다.

군은 취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 세목에 대해서는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집중호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부동산·자동차를 대체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군은 8월 주민세(사업소분)도 감면해 수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완화할 계획이다.

농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월 7일까지 3개월간 재난 피해 신고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료도 감면한다.

피해 사실 확인서를 지참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점·동부점·서부점)를 방문하면 동일 기종에 대해 임대료가 면제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세제 지원을 포함한 모든 가용 행정자원을 총동원해 군민 한 분 한 분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28~30일 강진하맥축제…사전 예약 매진

강진군의 대표 여름축제인 강진하맥축제가 28일 개막한다.

강진군에 따르면 28일부터 30일까지 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3회 강진하맥축제의 사전예약 자석 135개 테이블은 접수 시작 반나절 만에 전석 매진됐다. 특히 지난해보다 테이블당 가격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지난해 매진까지 3일이 걸린 것에 비해 올해는 단 몇시간 만에 전석 매진됐다.

올해 강진하맥축제는 편의시설 확충과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통해 쾌적하고 풍성하게 관광객을 맞이한다. 물놀이장은 지난해 1곳에서 2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장 게이트를 2곳으로 분산해 혼잡과 대기시간을 줄인다.

맥주 제공 방식도 개선됐다. 올해는 병맥주 대신 생맥주가 제공된다. 사전예약석 구역에도 전용 맥주 배부 부스가 추가로 설치된다. 전체 좌석 수 1000석 추가 확보, 임시 편의점 입점 등으로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축제의 마지막 날 밤에는 화려한 드론쇼가 펼쳐진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